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6년 1월 25일(일) 제1574호

온누리교회 13번째 캠퍼스 '서산온누리교회'



2026 서산온누리교회 캠퍼스 전환 및 이전 감사예배.

서산온누리교회 캠퍼스 전환 및 예배당 이전 감사예배 드려 이재훈 위임목사, 온누리교회 리더십 및 성도 등 190여 명 참석

서산온누리교회(충청남도 서산시 안견로 213 삼일빌딩 4층)가 온누리교회 13번째 캠퍼스로 전환됐다. 이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서산온누리교회 캠퍼스 전환 및 예배당 이전 감

사예배'를 지난 1월 21일(수) 서산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렸다. 이재훈 위임목사, 박종길 목사, 최영민 목사, 당회서기 민문기 장로 등 온누리교회 목회자 및 리더십, 서산온누리교회 성도 등 190여 명이 참석했다.

서산온누리교회 캠퍼스 전환 및 예배당 이

전 감사예배는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인도, 당회서기 민문기 장로 기도,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이성민 담임목사(서산본향교회) 축사, 장경식 장로, 함일성 장로, 최영민 목사(서산온누리교회) 감사의 말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위임목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막 2:18~22)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우리가 끊임없이 새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며 "서산온누리교회가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신 기쁨을 늘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최영민 목사는 "1994년 기도 모임으로 시작된 서산온누리교회가 32년의 여정을 지나 오늘에 이르렀다"면서 "서산온누리교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겸손히 섬기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산온누리교회는 지난 2004년 기도처로 태동했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지역주민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자리매김했다. 2025년부터 최영민 목사가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2026 목회사관학교

1월 26~28일 오크밸리 그랜드볼룸

2026 목회사관학교가 '나를 따르라'를 주제로 1월 26일(월)부터 28일(수)까지 오크밸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온누리교회 전임 및 파트 목회자, 해외 비전교회, 협력 교회, 온누리교회 출신 담임 목회자, 선교사 등 총 362명이 참석한다. 이번 목회사관학교에서는 공동체성경읽기, 주제 강의, 소그룹, 나눔, 특강, 기도회, 패널토의 등이 이어진다.

한편, 지난 1월 23일(금)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2026 상반기 Acts29 비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30개 해외 비전교회 목회자들과 협력 위원, 스태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Acts29 비전 콘퍼런스에서는 찬양, 양웅 장로 대표기도, 축복의 시간, 오범규 장로 격려, 권역별 인사 및 협력위원 소개, 이재훈 위임 목사 비전의 말씀, 권역별 모임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 홍하영 기자

2월부터 예배순서 개편

예배 중반에 '공동체성경읽기'

2월부터 예배순서가 일부 개편된다. 예배 5분 전 진행하던 '공동체성경읽기'를 예배 중반에 한다.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표'를 따라 모든 성도가 함께 성경 본문을 들고 읽는 시간을 가진다. 예배 시간은 변동 없다. 온누리 성경읽기 진도표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w.onnuri.org, 교인지원센터,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는다. 주일예배 공동체성경읽기(신

약·시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인성경읽기(구약·신약), 토요일과 일요일 개인성경읽기(잡언, 전도, 시편·구약)를 하면 1년 동안 성경일독을 할 수 있다.

예배 시작 15분 전부터는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한다. 예외적으로 예배 전 찬양과 기도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박지혜 기자

파워웨이브 연합수련회 'PASSION 2026'

1차 1월 30일~2월 1일, 2차 2월 1~3일 배재대학교

차세대 파워웨이브 연합수련회 'PASSION 2026' (이하 패션집회)이 막 오른다. 'Unshakable' (흔들리지 않는)을 주제로 대전 배재대학교에서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주제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이다. 차세대를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룩한 세대로 세우는 것이 목표다.

1월 30일(금)부터 2월 1일(일)까지 열리는 1차 집회에는 서빙고(2~4부), 양재(중등부), 강동, 부천, 수원, 영종, 하랑센터 파워웨이브를 비롯해 몽골 현지 학생들이 참가한다. 2차 집회는 2월 1일(일)부터 3일(화)까지 진행된다. 서빙고(1부), 양재(고등부), 남양주, 대전, 세종, 도곡, 양지, 인천, 평택, 서산온누리교회와 안산, 평택 M센터 파워웨이브 학생들이 참가한다.

2026 패션집회에서는 개회예배, 저녁집

회, 파워페스티벌, 주제 강의, 선택 강의, 폐회예배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김선재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 송바울 전도사(한터사역), 이훈형 대표이사(와우산레코드), 박위 형제(유튜브 위라클 채널 운영)가 강의한다.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고민을 다루는 선택강의도 풍성하다. 강동민 센터장(온누리 청소년센터)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나를 찾다', 강하선 디자이너 '디자인, 하나님을 닮은 창조의 언어', 고대근 교수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김지연 약사 '중독 없는 차세대를 위한 실천 가이드', 오경숙 본부장(창조과학회) '하나님의 설계' 래퍼 지푸 '8비트 랩으로 고백하는 Unshakable Faith'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2-3215-3521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예수님이 열두제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에서 소수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12’라는 숫자에 중요한 의미를 두셨습니다(막 3:14-1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마 19:28).

‘12’라는 숫자를 신약에서 반복하는 것은 12명만 위대하다 뜻이 결코 아닙니다. 12라는 숫자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과 새 이스라엘의 완성이 12라는 숫자가 가져다주는 메시지였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시몬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롯 유다의 이름으로 끝납니다. 영향력 순서대로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막 3:16-19).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약간 상이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름이 여러 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 이름으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 제자가 두세 명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기적에도 있었고, 일종의 소그룹 리더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격과 성품으로 섬김

안드레는 네 번째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 나옵니다. 마태와 누가는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올려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두 형제는 모두 어부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 사건에 등장하는 핵심 역할을 했지만, 안드레는 그들만큼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서신을 쓰지도 않았고, 초대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리더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때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나서서 발언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분명 있습니다.

첫째, 위치가 아니라 인격과 성품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안드레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른 제자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안드레를 ‘프로토클레토스’라고 불렀는데, ‘프로토’는 제일 먼저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알력이나 다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고,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해 줬는데도 자신의 위치를 주장하거나 내세우거나, 요구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안드레에게는 자신이 주목받지 않아도 늘 조용하고 겸손히 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단에 보면 언제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언급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 더 인정받고자 노력하지 않고, 중심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 가장 중심에 있었고, 베드로는 늘 나서기를 좋아하는 모습이 분명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높은 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안드레는 다른 제자들과 갈등의 중심에 서지 않았습니다. 천성적인 성품일 수도 있었지만,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였다는 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철저한 금욕 생활을 했고, 인내와 절제가 요구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먼저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남보다 두드러지지 않아도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며 조용히 섬기는 영성이 훈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둘째, 안드레를 통해 배우는 제자도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35~37절, 40절).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는 늘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제자는 대개 요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따랐던 제자가 자신이기에 그대로 쓴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

한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 증언했던 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어서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경쟁자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질투와 경계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증언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신랑을 얻는 자는 신부다. 신랑의 친구는 그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하는 법인데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고, 그분이 신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따르던 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경계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기뻐했던 세례 요한의 영성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증언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이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인 안드레와 요한이 올바른 것입니다.

안드레에게는 사람이 아닌 말씀을 따르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따랐기 때문에 안드레를 예수님이 제자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연결하는 다리 ‘안드레’

셋째, 가로막는 벽이 되지 않고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의 형 시몬을 예수님께 연결합니다(41절).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형 시몬이 고분고분 따라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담대하고 단호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라고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안드레는 최초의 전도자 모습을 보입니다. 전도자는 메시아를 만난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좋은 것을 발견하고 체험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진정 만났다면, 살아가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다면 모든 성도가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오병이어 기적의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후에 굶주린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빌립이 대답했습니다. “조금씩만 주어도 200데나리온으로도 모자랍니다.” 그때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요 6:8-9).

빌립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안드레는 적은 가능성을 가지고 그 소년과 예수님을 연결했습니다. 안드레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소년이 도시락 가지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이 소년은 안드레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소년만 도시락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연결하는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안드레는 한 그리스인, 헬라 이방인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한 그리스인이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 뵙기를 청합니다. 그때 빌립이 안드레에게 부탁합니다(요 12:20-22). 빌립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부탁했으면 거절당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왜 빌립에게 갔을까요? ‘빌립’은 이방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그리스인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가장 연결이 잘 될 사람으로 안드레를 지목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마음이 열려 있고, 편견 없이 한 영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품이 안드레에게 있다는 걸 알고 데려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안드레는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섬기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에 대해 언급된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전승과 설화에는 안드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안드레는 러시아에서 유명한 선교사였고, 그리스에서는 순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드레는 신실한 제자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연결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과 인내, 사랑과 자신을 내어 드리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연결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예수님이 사회주의자셨을까?

어떤 대화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데 전적으로 헌신하신 분이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회주의자였다!”라며 말한다고 가정해 보라.

이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돌보셨다는 것은 사실이다.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난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회주의자였다는 뜻은 아니다.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국가가 강제할 것을 주장하지 않으셨다. 많은 사회주의자가 사람들을 돕고자 한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경제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 역시 사람들을 돕고자 한다. 사회주의를 규정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 관한 관심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사용해 다른 사람들의 것을 통제하고 빼앗아 그것으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산업, 시장,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포함한다. 그 결과 임대료 통제, 최저임금법, 최고임금제, 부의 재분배를 목표로 한 조세 구조, 심지어 건강보험 같은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까지 등장한다. 이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도움의 모델이 아니다. 예수님이 강제를 거부하신다는 사실은 여러 방식으로 드러나는데, 그중 하나가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회주의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너희가 원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원하면’과 ‘언제든지’이다. 성경 전체에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언제나 선한 일이지만, 자발적인 행위로 제시된다. 이웃의 소유를 그의 뜻에 반하여 빼앗아 가난한 자를 돕도록 명령받은 적도 없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최우선 관심사가 사람들의 재정 상태가 아니라는 데 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재정 상태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 사회주의는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적게 가지고 있는 게 부당하다고 가르친다. 이런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예수님이 이에 대해 직접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자기 형제가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답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20장에는 또 다른 금전적 불평이 등장한다. 이번에는 소득 격차에 대한 불평이다. 종일 일한 노동자들이 하루 일부만 일한 노동자들과 같은 품삯을 받아 불평했다. 이 불평 역시 책망을 받는다. 예수님은 정의란 모두

에게 같은 시간당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계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하셨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느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것은 사회주의자의 말이 아니다.

셋째, 예수님은 부를 가난한 자가 아니라 성실한 자에게 재분배하셨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세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이야기를 들려 주신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한 종은 자기 몫을 땅에 묻어 두었고, 다른 한 종은 두 배로 만들었으며, 세 번째 종은 가장 큰 수익을 올렸다. 이 이야기에서 영웅은 누구인가? 가장 많은 부를 창출한 세 번째 종이다. 가장 적은 결과를 낸 첫 번째 종은 책망을 받으며, 그의 몫은 가장 부유한 종에게 주어진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여기서도 예수님이 사회주의자처럼 들리지 않는다. 사회주의가 가진 자에게서 빼앗아 없는 자에게 주려는 동기로 움직인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다. 예수님은 마음을 중시하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은 형편에 만족하면서도 관대해질 수 있었다.

넷째, 예수님의 최초 제자들은 사회주의 공동체를 세우지 않았다. 〈사도행전〉 2장은 초대 교회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주의자였음을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공동체에

는 생산 수단의 공유, 사유재산의 폐지, 강제적 분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야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정죄되었다. 베드로는 “그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것이 아니었느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했다.

이 말은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내놓을 의무가 있다고 믿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후에도 교회들은 성도들이 소유한 집에서 모였다. 사유재산은 여전히 존재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었지, 강제된 제도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초대 교회의 행위는 사회주의자였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의 상황과 무관하게 만족할 것을 가르치고, 강제가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관대함을 가르치며,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를 두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누군가 “예수님은 사회주의자였다”고 말할 때, 다음 네 가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국가가 강제하라고 주장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재정 상태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

“예수님은 부를 가난한 자가 아니라 성실한 자에게 재분배하셨다.”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은 사회주의 공동체를 세우지 않았다. 그들은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도왔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분열

분열의 시대: 이 시대의 왕은 누구입니까?

박은혜 성도
(강남A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우리의 모든 행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즉 세계관에서 비롯된다. 세계관은 우리 마음의 ‘운영체제(Operating System)’와 같다. OS가 컴퓨터의 모든 기능을 배경에서 조용히 통제하듯, 세계관은 우리의 가치관, 정체성, 행동

에 ‘기본값’을 설정한다.

기독교인들에게 기본값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신본주의’다. 하지만 세상의 기본값은 ‘내’가 주인이 되는 ‘인본주의’다. 인본주의 세계관의 뿌리는 〈창세기〉3장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현대에서는 19세기와 20세기의 모더니즘을 거쳐, 21세기의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휴머니즘이 대표적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 진리 자체를 부정하고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생물학적 정체성, 가정을 부정하는 모습 등이 그 예다. 이 해체 작

업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가 ‘갈라치기’다.

분열 전략은 대략 해체, 해체된 자리에 새로운 사상 주입하기, 법제화의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는 기존 질서와 권위를 끊임없이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 모든 사회 현상, 관계, 이론 등을 이분법으로 나누고, 억압자와 피억압자를 설정한다. 이 구도에서 억압자로 분류되면 갑이 되고, 피억압자는 을이 된다. 갑과 을이 결정되면 모든 논리가 갑질을 해체하는 것에 맞춰진다. 이 전략의 교묘함은 교육과 문화, 언어적 프레임을 통해 사람들을 을에게 감정이입 하도록 세뇌하는 것에 있다. 이와 같은 세계관에서는 ‘자본가-노동자’, ‘부모-자녀’, ‘남-여’, ‘서울-지방’, ‘노인세대-청년세대’, ‘교사-학생’, ‘시아머니-머느리’ 등으로 그 어떤 것도 둘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갑과 을이 고정된 게 아니라, 상황과 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갈라치기 세계관에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상황보다 훨씬 과장되게 을의 입장에 서게 된다. 개인이나 사회가 가지는 문제의 원인 제공자를 갑으로 보기 때

문에 을인 나는 언제나 피해자고 억울하다. 결과적으로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비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마치 조각난 거울처럼 날카로운 파편으로 나뉘어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별, 세대, 지역, 경제적 지위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 같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 인본주의 세계관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보좌에서 밀어낸 자리는 결코 비어 있지 않다. 분열과 세뇌를 통해 기존의 질서가 해체된 자리에는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들어간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것처럼, 그 빈자리는 ‘나’ 자신이나 특정 ‘이데올로기’라는 새로운 우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우상을 누구도 거스를 수 없도록 법제화를 시켜버리면 갈라치기 전략은 완성된다.

히브리어 ‘바달’이라는 단어는 ‘분리하다’, ‘둘로 나누다’, ‘구분하다’라는 의미다. 문맥에 따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구별이라는 긍정적 의미와 분열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

된다. 이 단어는 〈창세기〉천지창조 이야기에서 빛과 어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는 표현에서 처음 등장한다. 고라와 그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 자신들을 공동체에서 분리하려 했을 때도 사용되었다. 동일한 단어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곳에서는 거룩한 질서를 만들지만, 내가 왕이 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로 나타난다.

성경은 세상의 가치관과 분열 전략에 휩쓸리지 말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라고 권면한다. 구별된 삶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분열과 갈등의 현장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요구받는다. 이 화평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 즉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세상 만물의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총체적 화해다. 이 사명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만 가능하다. 이 글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분열의 시대에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신년특집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나를 따르라”(마 16:24).

2026년 온누리교회 표어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전제한 그리스도의 엄중한 명령이다. 2천 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을 향하기 때문이다.

〈온누리신문〉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난다.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고 뜨겁게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과 고백을 듣는다. 그 두 번째 주인공은 의료플랫폼 NGO 메디엑세스(MediAccess)의 김병순 대표와 행가래운동본부 김선래 이사장이다.

/ 홍하영, 박지혜 기자

“세상의 아픔 치유하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NGO 메디엑세스 대표 김병순 장로의 새해 소망



지난해 5월 출범한 NGO 메디엑세스는 “나를 따르라”(마 16:24)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청진기 들고 산넘고 바다 건너 지구촌 이웃들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치유하고 있

다. 김병순 대표는 NGO 메디엑세스의 태동과 사역을 돌아보면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했다.

“지난해는 온누리교회가 40년 동안 쌓아온 의료선교의 유산을 NGO라는 더 넓고, 전문적인 그릇에 담아내는 ‘산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국제 사회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구조 기관의 면모를 갖추는 법적, 행정적 기틀을 만드는

데 집중했고, 6개 위원회와 8개 진료팀, 7개 지원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각 분야 의료 전문가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일이 NGO 메디엑세스가 세워진 가장 큰 이유이자 자산입니다.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늘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동역자들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에 없었다면 NGO 메디엑세스는 태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병순 대표는 NGO 메디엑세스가 단순한 의료 봉사 단체를 넘어 ‘종합적인 의료선교 플랫폼’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NGO 메디엑세스는 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력 및 물적 지원, 현지 교육 및 자문,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네 가지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약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현지 의료진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자립을 도와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이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 성과보다 신실함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 전문성을 정직하게 다듬고, 팀 간의 소통을 강화하며, 함께 기도하고 책임지는 동역자들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NGO 메디엑세스가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협력 기관이 된 소감도 밝혔다.

“온누리교회는 늘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누리교회 성도 한 사람으로서故 하용주 목사님이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거룩한 유산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이재훈 위임목사님을 통해 확장된 ‘축매, 융합, 플랫폼 선교’의 비전이 NGO 메디엑세스가 나아갈 방향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와 NGO 메디엑세스의 협력은 열방을 치유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교회와 기관의 협력과 더불어 성도님들의 참여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NGO 메디엑세스 사역에는 의료인뿐만 아니

라 행정, 통역, 사진, 영상 등 비의료인 성도들이 은사대로 섬길 영역이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고 싶은 성도님들이 NGO 메디엑세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십시오.”

김병순 대표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묵히 따르는 제자로 살고 있다.

“제가 생각하는 예수 따르는 삶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매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순간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 20:26)는 말씀을 평생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NGO 메디엑세스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NGO 메디엑세스가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한 가정이 회복되면 다른 가정과 사회가 변화됩니다”

행가래운동본부 이사장 김선래 장로의 다짐



2019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며 새롭게 도약한 사단법인 행가래운동본부는 지금, ‘가정의 회복’이라는 본질 앞에서 있다.

“나를 따르라”(마 16:24)

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저출생과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행가래운동본부 김선래 이사장이 협력 기관으로 함께 섬기게 된 소감을 나눴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행가래운동본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청년들이 소망을 품으며, 다음 세대가 축복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온누리교회와 행가래운동본부의 협력이 복음이라는 본질을 더욱 분명히 나타내는 동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가래운동본부가 사회적 위기를 바라보는 시선과 해결책이 명확하다. 정책이나 숫자의 문제가 아닌 ‘가정과 관계의 회복’이라는 본질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행가래운동본부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과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를 ‘가정의 붕괴’에서 기인한 문제로 바라보고,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는 문화 운동을 실천합니다. 결혼이 두렵고, 가정이 불안한 사회에서는 출산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가래운동본부에서는 결혼과 가정을 다시 ‘축복의 자리’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김선래 이사장은 최근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저출생과 인구 절벽 문제가 더는 추상적인 우려가 아님을 강조했다.

“일론 머스크는 현재 한국의 출산율이 유지

될 경우 3세대 후(약90년)에는 인구가 현재의 약 3%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 같은 인구 감소가 국가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교회와 사회가 함께 ‘가정의 회복’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김선래 이사장은 ‘행가래(幸家來)’라는 이름에 담긴 ‘행복한 가정이 곧 미래의 축복’이라는 메시지가 구호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내는 것이 행가래사역본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행가래운동본부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청춘클래스-연애코칭-결혼코칭’을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연결해서 만남에서 결혼, 가정의 형성까지 건강한 길을 안내합니다. 둘째, 생명과 가정의 가치를 회복하는 메시지를 교회와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전파합니다. 셋째, ‘작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Small Wedding)’을 통해 형식과 비용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가정 모델을 제시하

는 것입니다. 저출생과 인구 절벽의 위기를 극복하는 검증된 대안과 실행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이미 가능한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정의 회복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싶습니다.”

김선래 이사장은 개인의 신앙과 삶, 그리고 행가래운동본부의 사역 중심에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고 고백했다.

“제 신앙의 핵심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곧 가정과 관계, 나아가 사회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저의 좌우명이자 행가래운동본부 사역의 중심입니다. 저와 행가래운동본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걸어가려 합니다.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의 위기 앞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회복되면 또 다른 가정이 살아나고, 그 변화가 사회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슈(Issue) 바로보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시 127:1)

1963년, 첫아이를 유산으로 잃은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부부의 네 번째 아기 패트릭(Patric)이 임신 36주에 출생체중 2.1kg으로 오티스(Otis) 미 공군 병원에서 태어났다. 패트릭은 출생 즉시 하버드대학 부속 보스턴 아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출생 39시간 만에 사망했다. 당시에는 신생아 전문 소아과 의사가 없는 시절이었다. 그래서 소아심장과에서 호흡부전에 빠진 패트릭을 치료하기 위해 성인 이산화탄소 중독을 치료하는 대형 고압산소탱크에 넣고 치료를 시작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어른이 들어가도 충분할 만큼 거대한 산소탱크 창 너머로 겨우 2kg 남짓한 가냘픈 패트릭이 죽어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듬해 케네디 대통령은 신생아와 미숙아 진료 연구를 위해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법을 승인한다. 거액의 연구비 지원으로 ‘신생아학(Neonatology, Newborn Medicine)’이라는 새로운 소아 진료 분야가 신설되었다. 연구가 계속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매년 수십만 명의 신생아와 미숙아들이 목숨을 구하게 됐다.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00년까지 60만 명 수준을 유지하던 신생아 수는 2020년을 기점으로 20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출산율은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거로 예상하는 아이의 수를 의미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약 0.7명 수준이다.

이는 사상 최저 기록이자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부부 두 사람이 평생 자녀를 한 명도 채 안 되는 0.7명을 낳는 구조가 지속하면서 한국은 지구상에서 소멸할 1순위 국가가 되어 버렸다.

정부는 2006년 이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왔다. 결혼할 여건을 만들려고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하며, 불임여성의 임신을 의료보험에서 돕고 있지만, 출산율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출산율을 올리는 여러 지원 방법 중에 이미 태어난 미숙아를 살리는 일 역시 중요하다. 요사이 미숙아를 ‘이른둥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는 조선 시대 재상 한명회가 있으며, 세계적으로 보면 천재로 불리는 이른둥이들이 많다. 역사적 인물로는 아이작 뉴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찰스 다윈, 마크 트웨인, 윈스턴 처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등이 있다. 연예인은 시드니 포이티어와 스티비 원더 등이 있다. 인류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유명한 과학자, 정치가, 연예인들이 이른둥이로 태어났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만약 이들이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인류에게 커다란 손실이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해가 갈수록 미숙아 분만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미숙아 출생 빈도가 신생아 100명당 2명이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6명까지 증가했다. 앞으로는 신

생아 100명 중 10명이 미숙아로 태어날 거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미숙아 출산이 많아지는 원인은 고령 산모의 출산 증가와 함께 불임여성의 배란촉진제 사용과 인공수정 등의 영향으로 쌍둥이 출산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른둥이를 신생아집중치료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하다 보면 자괴감이 들 때가 많다. 과거에는 주치의인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따라 부모가 치료를 계속하겠다는 결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치료를 중단한 채 퇴원해 결국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내 말 한마디에 한 생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인가?’라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된다. 현대 의학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치료 결과는 아기가 다르다. 같은 치료를 했음에도 어떤 아기는 살고, 어떤 아기는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생존한 아기들 가운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기가 있는가 하면, 일부 장기에 이른둥이로 태어난 흔적이 남아 장애를 겪는 경우도 있다. 장애의 정도 역시 심각할 때가 있고, 비교적 가벼운 어려움에 그치기도 한다. 태어나고 몇 시간도 세상에 머물지 못할 아기를 하나님은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생명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신생아 진료 전문 소아과 의사로서의 무력함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것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시 127:1).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는 미숙아에게는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한 기관지 삽관, 수액 공급과 혈액 검사를 위한 배꼽동맥 줄 삽입 그리고 심장 박동 측정을 위한 심전도와 체내 산소 농도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 등 수많은 연결 줄이 작디작은 몸을 감싸고 있다. 심장 박동과 혈압,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감시 장치에서는 쉬지 않고 경고음이 울린다. 심지어 수유용 수액관이 막히기만 해도 수액 펌프에서 경고음이 울린다. 온종일 이른둥이의 몸에 부착된 수많은 감시 장치들이 쉬지 않고 경보음을 울려댄다.

고뇌와 의문에 싸인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의지가 되었던 성경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깨어 있음)이 허사로다’였다. 실로 현대 의학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수많은 파수꾼이 24시간 내내 깨어 아기 상태를 감시하고 있지만, 이른둥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는다.



이철 장로
(OCC 공동체, 한라로의료재단 명예 원장, 전 연세의료원장)

정주호의 홀리바디(Holy Body)

교회를 다녀도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

교회를 다녀도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학교에 다닌다고 성적이 저절로 오르지 않고, 직장에 출퇴근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업무 성과가 나거나 연봉이 오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동적이고 맹목적인 삶은 학교, 직장, 교회에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학교에서 무언가 하나라도 집중해서 배우려고 하고, 직장에서 시키지 않은 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인정받는다. 교회에서도 설교를 명하니 듣고 나와서는 내적, 심적, 영적 변화가 생길 리가 만무하다.

중요한 것은 남으로부터가 아닌 나로부터 출발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주일마다 개근하고도 믿음의 개근상 하나 받지 못할 수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이라고 하기보다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다. (야고보서) 1장 22-24절에서도 듣기만 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

어버리거니와.”

나 역시 불신자에서 교회를 들락날락하던 교인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기까지 상당히 오랜 세월이 있었다. 내가 경험한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 방법 하나는 바로 ‘Why’였다. 스스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하나님은 있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럼 왜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났나? 왜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나? 왜 나는 우리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났나? 왜 나는 남들과 다른 성장 배경을 가졌나? 왜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는가? 왜 나는 이런 성격, 인격, 성향을 가졌나? 왜 나는 어떤 일에 기뻐하고, 어떤 일에 슬퍼하는가? 왜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졌는가? 왜 나는 살아가야 하는가? 왜 나는 결국 인생을 다하고 죽는가? 왜 나는 남이 아닌 나인가? 왜 나는 내가 아는 다른 인생의 모습과 다른가? 왜 나는 신앙을 가져야만 하는가? 왜 나는 나인가?’

수많은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인문 서적을 읽으며 답을 구하려고 했다. 또 세미나를 찾아가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인생의 시간을 소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생의 질문이 아무리 많아도 답은 하나라는 진리

를 발견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가는 동안 생기는 수없이 많은 질문, 즉 삶을 헤쳐가는 동안에 생기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시련, 고난과 역경, 고민을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복잡했던 모든 것이 일순간 마음에서 정리되고 인생이 간단해진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온전히 나의 숙제로 남아 매일 밤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근심과 걱정이 된다. 필자는 우리가 Why를 날마다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Why에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 밤에 잠을 청할 때는 하나님과 연관 있는 의미 있고 값진 하루의 인생을 감사할 수 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시 42:8).

이 말씀처럼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곧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밤에 잠드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작은 죽음의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날

마다 태어나고, 또 날마다 죽음을 지나는 셈이다. 은혜를 매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한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 뜻에 합했는지 돌아보게 된다. 오늘 밤 잠든 뒤 내일 아침 눈을 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16-18절 말씀을 되새겨보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인생은 바로 오늘이다. 최고의 순간은 바로 지금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신나게 하루를 기대하며 살기를 건강전도사 정주호가 응원한다.



정주호 대표
(중종로공동체, 스타트레인대표, 재활과학박사)



사진은 지난 1월 20일(화)에 드린 '온누리 법조인 모임(OLF)' 창립예배.

온누리 법조인 모임(OLF) 창립예배

온누리교회 리더십 및 법조인 98명 참석

‘온누리 법조인 모임(Onnuri Lawyers Forum)’ 창립예배를 지난 1월 20일(화)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 홀에서 드렸다. 이재훈 위임목사, 당회서기 민문기 장로, 양웅 장로, 김용호 장로 등 온누리교회 리더십과 법조인 98명이 참석했다.

온누리 법조인 모임 창립예배에서는 최태형 집사 사회, 양웅 장로 기

도, 이재훈 위임목사 ‘약속과 율법’(갈 3:15~22) 말씀 선포, 김용호 장로 인사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온누리 법조인 모임이 법 너머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성도들을 깨우치기를 바란다”며 “힘을 모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감당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양웅 장로는 “온누리 법조인 모임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을 증거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했다.

온누리교회 법조인 모임은 자발적으로 모인 법조인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독교 법조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소명을 함께 이루고자 만든 신앙공동체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푸른울타리, 자립준비청년과 뮤지컬 관람

봉사자와 자립준비청년 등 70여 명 참석

사회선교본부 소속 고아사역팀 ‘푸른울타리’가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 지난 1월 24일(토) 명륜아트홀에서 뮤지컬 ‘천로역정’을 관람했다.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뮤지컬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 삶의 위로와 영적 소망을 전하기 위해 준비한 행사였다. 뮤지컬 관람

이후 저녁 식사와 교제도 했다. 푸른울타리사역팀 봉사자, 자립준비청년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오창화 집사(온누리울타리팀장)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인생이라는 긴 순례길에서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 홍하영 기자

CGN 신규 콘텐츠 <방주타GO!> 시청 이벤트

1월 30일~2월 18일 전편 시청하고 퀴즈 참여

CGN 신규 콘텐츠 <방주타GO!> 시청 이벤트를 1월 30일(금)부터 2월 18일(수)까지 진행한다. <방주타GO!> 전편(총 4편)을 시청한 다음 퀴즈에 참여하면 된다. 당첨자에게는 센터키 현지에서 공수한 희귀 굿즈(방주 모형, 방주 레고 블록, 기린 인형 등)를 제공한다. 당첨자는 2월 26일(목) 개별 연락 한다.

<방주타GO!>는 OTT ‘퐁당’과 CGN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OTT ‘퐁당’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방주타GO!>는 이재만 선교사(창조과학선교회)와 함께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미국 캔터키주의 ‘아크 인카운터(Ark Encounter)’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회복사역 ‘엘라이프’ 참가자 모집

2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주 토 오전 10시

회복사역본부 ‘엘라이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2월 28일(토)부터 4월 11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2월 25일(수)까지 아이스쿨과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9만 원.

엘라이프는 40일 동안 감사, 운동, 기도, 음식, 기쁨 등 다섯 가지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회복하는 훈련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나답게 사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준다.

문의: 02-3215-3532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배와찬양 큰잔치 ‘복음에 합당한 삶’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이 주최하는 ‘마흔 번째 해맞이 경배와찬양 큰잔치’가 2월 12일(목) 오후 7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및 해외 비전교회에서도 생중계한다. 이번 집회 주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빌 1:27, 29)이다. 하스데반 선교사와 경배와찬양 국제사역팀이 예배를 인도한다.

경배와찬양은 1987년 교회의 예배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해 설립된 초교파적 국제 선교단체다. 독일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와 미주 대륙에서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문의: 02-796-9700

일.하.세 아카데미 25기 참가자 모집

‘일.하.세 아카데미’ 2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월 31일(토)부터 3월 7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양재온누리교회 샤론홀(지하 2층)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월 31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나 QR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일.하.세 아카데미에서는 삶의 문화관, 대인관계, 정체성, 인생 설계 등 실천적 주제를 토론하고, 스스로 성공적인 삶을 설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10-4949-0254



포천하랑센터, ‘창조과학캠프’ 개최

7개국 출신 다문화 차세대 53명이 참가

포천하랑센터가 아주 특별한 과학 캠프를 개최했다. 지난 1월 12일(월)부터 13일(화)까지 ‘창조과학캠프’를 열었다. 한국,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중국, 가나, 니과라과 등 7개국 출신 다문화 차세대 53명이 참가했다.

이번 창조과학캠프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과학적 탐구를 통해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음을 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도록 돕는 프로

그램이 이어졌다. ‘우연이 아닌 창조’, ‘과학으로 만나는 생명의 질서’, ‘나는 어떻게 지음 받았는가’ 등의 주제로 강의와 실험, 토론, 조별 활동 등을 했다.

박승호 선교사(포천하랑센터)는 “이번 창조과학캠프는 다문화 차세대가 정체성과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을 세우는 과정이었다”면서 “다문화 차세대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비전을 가지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돌봄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영화 ‘신의 악단’ 관람회 개최

온누리교회 및 협력 기관 210여 명 참석

2000선교본부가 주관한 영화 ‘신의 악단’ 관람회가 1월 22일(목) CGV 용산에서 열렸다. 2000선교본부, 로잔위원회, 메디엑세스, SWIM, 더멋진세상, CGN, 온누리복지재단, 사회선교본부, 양육본부, 특별한초대, 권사회, 드림온맘, 영종온누리교회 등 온누리교회 및 협력 기관 210여 명이 참석했다.

영화 ‘신의 악단’ 관람회에서는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 본부장) 인사, 제작 관계자 및 배우 인터뷰, 영화관람, 나눔과 기도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김홍주 목사는 “온누리 가족들과 함께 뜻깊은 영화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면서 “영화 ‘신의 악단’을 더 많은 분이 관람하고, 북한과 그 땅의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화 ‘신의 악단’은 북한 당국이 NGO 단체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 ‘가짜 부흥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위부 체포조 ‘박교순’과 감찰부 ‘김 대위’의 변화를 그린 작품이다.

선교와 개발의 탈식민화

NGO 더멋진세상, 세계선교학회 발표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1월 22일(목) 필리핀 마닐라 드라살대학교에서 열린 ‘세계선교학회’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권은영 목사(NGO 더멋진세상 미래전략사업실장)가 ‘선교와 개발의 탈식민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NGO 더멋진세상이 전 세계 37개국에서 축적한 사역 경험과 신학적 기반을 소개했다.

특히 권 목사는 서구 중심의 ‘기부자-수혜자’ 구조가 현지의 주체

성을 약화했다고 진단하며, 그 대안으로 ‘미시오 데이(Missio Dei,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강조했다. 선교와 개발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며, NGO는 겸손히 참여하는 증인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NGO 더멋진세상의 핵심 사역인 ‘지역사회보건전도(CHE)’도 소개하며, 현지 공동체가 가진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제안했다.

1월 세례명단

<서빙고> 김수범 860228 박영숙 680810 이강훈 780328 정사나 850422 조성진 820129 최진호 670724 -입교 김의진 810610 이지수 970516 -유아 광예나 240326 광철중 임지연 김설아 250611 김찬주 이정은 박하열 250813 박시은 남현민	백유나 250220 백승철 이진우 성나는 240215 성기준 신은희 송하영 241217 송영준 한지연 신유안 220316 신상오 김문선 장도연 250428 장성민 남현수 함서원 250316 함상엽 최하경 <양재> 구기범 781018 김희용 010801 박소연 050415 박우정 020322 하재형 020615	현정아 731018 -유아 김예린 250529 김지용 정윤희 김이레 240428 김상운 이지연 방이안 241213 방재훈 김초림 이주는 230719 이인성 김수진 진해은 250323 진영재 노가은 한승규 211022 한진규 한승연 한서연 210802 박소현 고선실 한채연 230426 한준현 고선실	한태연 230426 한준현 고선실 <대학청년> 여호수아 송수민 831223 안수현 911004 오지수 971128 -입교 유진 860613 원다솜 931024 전예송 970925 허브 김나경 990412 -입교 배예성 051122	박재은 031020 CH PLUS 서정은 920928 J4U 최영찬 911223 SNS 강주현 870918 김정우 910713 최정훈 930618 SNS Cross 엄선영 950210 -유아 동에서 241030 동윤상 방은경
---	---	--	---	---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교회 소유 저효율 부동산의 매각 취지를 설명드립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일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교회 소유
부동산 중 일부 저효율 부동산의 매각 추진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배경을 성도님들과
투명하게 나누고자 함입니다.

▶매각 추진 배경 및 취지

첫째, 저효율 부동산은 교회 사역과 외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실제 활용 용도가 거의
없어 사역을 위한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저효율 부동산은 자산가치 대비 높은
관리비(세금 포함)로 교회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저효율 부동산의 매각을 통해 교회가
향후 집중해야 할 핵심 사역에 재정을 우선
배분하기 위함입니다.

▶매각 추진에 대한 당부의 말씀

첫째,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성도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로 세워져 왔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일수록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저효율부동산의 매각은 “자산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사역의 본질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매각이 교회의 자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재정적 안정만을 위한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가장 가치있는 곳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당회와 재정위원회, 기타 전문가들의
검토와 기도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셋째, 모든 매각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고 온전하게
진행되어 위 취지와 목적에 합당한 쓰임을 받고
하나님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 받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위원회 자산관리위원회]

선교재단 & 복지재단 부동산 매각 입찰 공고

[매각 입찰 공고 물건]

- 물건 1.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489외 27필지, 건물 2개동
- 물건 2.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234외 27필지, 건물 5개동
- 물건 3.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100외 1필지
- 물건 4.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1049-1외 2필지, 건물 2개동

- ▶매각 입찰 일정 : 공고 25.12.06 ~ 26.02.06 / 입찰서제출 26.02.03 ~ 26.02.06
- ▶매각 세부 절차 및 명세 :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알림판' 참조
- ▶매각 주관 : 온누리교회 재정위원회 자산관리위원회
- ▶일반 문의 : 온누리선교재단 자산관리팀 (02-3215-3134, 3136)